제 9강: 노동과 소외

1. 노동의 의미

고대: 특정 계급만이 노동을 함

근대: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팖. ‘모두가 상인’.

* Homo Faber: 도구의 중요성을 내포. 도구를 만드는 인간.
* Homo Laborans: 일 전반을 의미함. 일하는 인간.
* 직업이라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함. 자기 나름의 직종에 종사하게 됨.   
 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일. 기독교(구교/신교-프로테스탄트/가톨릭) 중 신교의 영향을 받은 루터. 잠시 머물다 가는 세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될 수 있음. 그러나 신교적 접근을 하면 달라짐. 나의 일은 하느님이 부여한 일, 소명.

1.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주요 노동 개념
2. 로크의 노동 개념

* ‘소유’ 개념을 중요시함.
* 노동의 세계는 곧 우리의 세계를 만드는 것.
* 가치에는 유용성이 들어있고 그 유용성 뒤에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음.

1. 아담 스미스의 노동 개념

*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하여 노동을 계속한다.
* 동물과 인간은 모두 도구를 이용하지만 그 도구의 정교성 정도가 다르고, 인간과 달리 동물은 무한욕구를 가지지 않는다.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를 그 어떤 동물보다도 많이 생산해낸다.
* 노동 분업의 중요성. 분업이 되지 않으면 생산력이 향상될 수 없음.
* 임금 노동은 시간을 통해서 계산되게 됨.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정교한 시간 개념이 등장하게 됨.
* 추상화된 노동.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름. 자신이 만든 상품으로부터 소외되게 됨. 자기 성취감 이라기보다는 정신의 황폐화와 같은 문제 발생.

1. 헤겔의 노동 개념

* 노동은 자연을 가공하는 행위. 자연은 인간 자신의 자연성 + 외부 세계로서의 자연  
 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, 사회 안에 던져짐으로써 끊임없이 사회화됨. 자연성을 가공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것.
* 노동은 우리의 정신적인 의도대로 자연을 변형하고 가공하는 것.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문화가 된다.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사물을 변형한다.

1.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

*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나 정신을 강조한 헤겔과 반대로 물질을 강조함.
*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행위
*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모든 사람이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음. 물질적 토대 속에서 평등이 나오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.

1.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주요 소외 개념
2. 헤결의 소외 개념

*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. 외화(externalization)와 같은 개념. 자신의 자연성으로부터 외화됨.
*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함

1.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

* 사회, 경제로 굉장히 한정함.
* 자기실현으로부터의 소외, 결과물로부터의 소외, 결과물(자신이 생산한 상품)에 대한 소외.  
  초기 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을 강조.
* 자본주의의 문제점 -> 노동 착취 야기 가능!
* 아동 노동 또한 문제삼음
* 영국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(자본주의가 늦게 들어온 국가)에서만 있었던 헤겔에 비해 더 많은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들을 직접 보았음.

1. 현대의 소외 개념

* 자신이 만든 문화로부터 자신이 소외됨
* 니체, 무리라는 개념을 가장 싫어함. 개성, 개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. 획일화, 평준화.
* 하이데거는 니체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음.